

2015년 11월 30일 새벽 편집본 정리 말씀

오늘도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했어요? 새벽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와 닿고, 그리고 기도한 것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맛’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먹고서 몸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 발효가 되어야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쓰여 지고, 하늘과 의논하고, 말씀을 듣고, 맛이 들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맛이 들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맛이 들어야 됩니다.

새벽이 맛있습니까? 새벽, 맛있어요?

본인이 해 봐야 성서가 와 닿습니다. 본인이 해 봐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가슴에 찌릿 찌릿 찌릿, 그리고 머리에 짜릿 짜릿 짜릿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가다보면, 오랫동안 가다보면 그렇게 한 일에 대한 대가가 꼭 옵니다. 그것은 꼭 옵니다. 금방 뭐 조금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 밖에 안 달라집니다.

3일이면 땀나고 운동하면 3일이면 또 때가 나오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하고 그러면 또 때가 나는데. 노폐물이 계속 빠져 나오는데. “에이, 몸뚱아리, 이것 관리하는데 힘드네.” 합니까?

온 세상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요?

늘 씻고 닦고, 이를 씻고 닦고, 깨끗이 구석구석까지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가 있는가 보고 그래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의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깨끗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신부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신부들은 접촉하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입도 깨끗하게 닦고, 머리도 냄새나면 안 되고, 옷도 늘 빨아 입고 깨끗이 하고, 멋있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늘을 만나기에.

선생은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늘 깔끔하게 한 것이 확실히 기억납니다. 씻고 닦고.

나는 그때에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때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때도 “애인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쳐다본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너, 왜 이렇게 애리에 때가 있냐? 그리고 너 몸 안에서 냄새 난다. 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늘 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관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씻고 닦고 그랬습니다.

한번은 교회에 갔는데,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인데, 그때는 빨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갔더니만 “선생님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요.” “왜?”

“이런 것 빨아주세요. 많이 검었어요. 내가 빨아줄까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렇게 쇼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애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맛이 들어서 새벽에 열심히 뛰고 달리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체질이 되면 힘이 안 듭니다. 체질이 되면 힘이 안 드는 것입니다. 체질화, 습관화 되고, 버릇이 되면 힘이 안 드는 것.

여러분들도 체질이 되면 충분히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잠을 다스린대요. 여러분도 큰 자가 되었다면 잠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꼭 제시간에 떠나는 하나님의 시간 역사!

선생님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시간 늦게 오면 문 닫아 버린다.” 하고 문 닫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 우리가 그렇게 해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완전하도록 하여라. 온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행해야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까지 생활을 해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생을 타락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하나님 섭리의 원 뜻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만 잘 압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모릅니다. 안 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라!

구약시대 때는 종들 시대라 완전하게 못 삽니다.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이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냥 지내면 만족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왔을지라도, 성약 역사가 왔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부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섬기고. 그냥 ‘시대가 왔구나. 신부 시대가 왔구나.’ 하며 시대가 왔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천층 만층 구만층입니다.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냥 살면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보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영혼도 영혼 나름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육신만 하면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육신은 존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신앙이 존재하고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살고 신약 시대는 그렇게 살고 했지만, 성약 시대는 더 이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어제에 있는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내일 있고, 옛적에 있던 것이 현재 있고 현재에 있는 것이 미래에 있고, 미래에 있을 것이 오늘에 있고, 오늘 있는 것이 과거에 또 있었다. 해는 떴다가 서쪽으로 가고 또 다시 뜨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바람은 불고 다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랴? 해 아래서 무엇이 다른 것이 있으랴? 심령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해가 다르게 뜨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은 여전히 동일하다. 구약시대 때도, 종들 시대 때도. 신약시대도 동일하고. 성약시대와도 동일하다. ”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은 역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하는 것이. 성약역사가 왔을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은 여전하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 서로 위함, 서로 공경, 서로 존경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안 이루어지면 결혼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애인같이 대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온 애인같이! 오늘 온 애인같이 늘 대해 주고, 오늘 시집 온 애인같이 대하고, ‘지금 연애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좋은데,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남자도 신경을 써 주고, 여자도 신경을 써 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자꾸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평소에 늘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신경 써 주니까 꽃도 이렇습니다.

꽃 관리 내 관리다

집 관리 내 관리다

사람 관리 내 관리다

내 육신 관리 내 영혼 관리다

어떻습니까? 그 시가 이미 묵시로 나왔습니다.

여자를 자꾸 존경해야 됩니다. 남자도 자꾸 존경하고, 위해 주고 섬겨 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어제 시를 썼는데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다른 데 있어서 그대로는 다 못합니다.

꿀뚜기도 고래, 상어가

우러러보아야 존경하옵니다

개살구도 모든 과일들이

우러러보아야 존경하옵니다

작은 자도 큰 자들이

우러러보면 존경하옵니다

존경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

존경하는 사람

정말로 크고 큰 사람입니다

하찮은 인간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존경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러러봐야 존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러러보는 것을 자꾸 밑으로 보니까 형제같이 보고, 저 밑의 종같이 보기 때문에 “야, 뭐 하는 거야? 쌍!” 이러는 것입니다.

“웨지려고 환장했나? 죽일 거야.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좋습니다. 종같이 대하니까 종이 되어 버립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니다.

바울 선생은 “여자는 질그릇과 같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질그릇같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살짝만 해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깨지면 끝난 것입니다.

“깨지면 끝난 것이다. 그 질그릇 깨진 것이다. 살살, 살살, 살살.”

이 시대가 왔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시대에 섬리역사, 신부의 역사가 왔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약 역사의 신부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로서 시대의 하늘을 위하고, 섬기고, 받들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신부의 짓’을 해야 시대가 온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보이는 하늘의 보낸 자를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보이는 자를 그렇게 못하는데 안 보이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려서 얼렁뚱땅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르기만 했습니다. 컸으니 완전히 모두 해야 됩니다.

이제 신부로서 반드시 이제는 완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신부된 입장에서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서로 존경해 주고, 위해 주고, 섬겨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항상 존경하고 위해 주고 섬겨주고, 어렸을 때도 해버릇해야 됩니다.

같이 끼어주고, 같이 일을 맡기고, 같이 존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래 된 사람만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해봐서 그런 것을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시정하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